

일일 벤처 체험기

이번 호 일일 벤처 체험에는 니트젠 SD팀 전재현 차장의 어여쁜 아내, 정예은 씨가 참여해주었습니다.



니트젠이 이끄는, 지금부터 지문 인식 시대!

서울에서 한 발짝 벗어나 시원한 시야와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경기도 안양.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내려 '희망공원'을 따라 쪽 걸다 보면 니트젠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상큼한 향이 감도는 로비에서부터 조용한 듯 강한 니트젠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지문인식 기술을 알리고 있는 니트젠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1. 니트젠을 만나려면 지문이 필요하다

니트젠의 트레이드 마크, 출입문 한 쪽에 자리한 '지문인식 출입통제기' 앞에서 SD팀 전재현 차장의 아내 정예은(36) 씨가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언론이나 영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탄 지문인식 출입통제기지만 생활에서 자주 접하기는 흔치 않은 게 사실. 하지만 예은 씨는 회사가 이전하기 전 니트젠을 방문해 본적이 있어 생소하지는 않다고 한다.

“지난 4월, 회사가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오고 싶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처음인데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라 그런지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편안하네요.”

#2. 니트젠을 구축하는 양대 축

본격적으로 니트젠탐험에 나선 예은 씨. 먼저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양대 축, 개발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2층과 관리와 영업을 책임지는 3층의 팀을 살펴보기로 했다. 2층엔 일일벤처체험기에 아내를 적극 추천한 전재현 차장이 속한 SD팀과 고객의 의사향을 해결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S팀, 그리고 PM팀 등이 자리해 있다. 특히 니트젠은 제품의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퀄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품질테스트를 담당하는 PM팀의 역할은 막중하다. 3층엔 경영지원실과 국내사업팀 그리고 해외사업팀 등이 자리를 잡아 튼튼한 돌다리처럼 서로 맞물리며 업무를 진행한다.

#3.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다

6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머무는 2층에 SD팀 전재현 차장의 자리가 있다. 언뜻 보기엔 2명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될 만큼 넉넉한 책상과 자리배치에서 니트젠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책상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3대의 모니터. 소프트웨어 개발 풀킷을 제공하는 SD팀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이 많아, 두 대의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머지는 대로는 본격적인 업무 작업을 진행한다.

책상 한 쪽으로 가족사진도 보인다. 언뜻 세보이도 예닐곱 장은 될 듯한데 아니나 다를까, 전재현 차장은 니트젠 최초의 '애처가상'을 받은 수상자! 전재현 차장의 가족 사랑도, 이러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는 니트젠의 직원 사랑도 일품이라 할 만하다.





#4. '나'를 안심시켜주는 니트젠의 든든한 제품

“와, 여기 니트젠의 제품이 다 있네요, 사실 열쇠만으론 불안한 시대잖아요, 누구도 복제할수 없는 나의 지문'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안전한게 있을까요.”

3층 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니트젠의 제품 체험 전시 코너. 니트젠을 방문한 고객들이 언제든지 니트젠의 핵심제품을 직접 조작해볼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간이다.

니트젠의 지문인식 제품은 '바이오인식'에 기초한다. 바이오인식이란 개인이 신분증 대신 지문, 홍채, 손금 등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는 방법. 9·11테러 이후 공공기관의 보안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지문인식 인증법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니트젠은 도어락뿐 아니라 컴퓨터용 지문인식기와 지문인식마우스 등 발 빠르게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5. '백두산'에서 세계를 바라보다

1998년 막이 오른 니트젠의 역사는 2006년 현재 그동안 쌓아온 든든한 바탕 위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니트젠의 대회의실에는 'Where We Are'이라는 세계지도 보드가 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 직원 회의에서 제품을 수출한 나라에 스티커를 붙이며 '앞으로 뻗어나갈 곳'을 확인한다는 체계화된 조은경과장의 설명.

“니트젠의 제품을 도입한 나라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이란, 루마니아...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네요.”

역은 씨의 탄성처럼 세계를 향한 니트젠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니트젠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도요타와 지문인식 출입통제기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일본 경비보안업체의 대기업인 세콤과 1대1 경쟁에서 현지기업을 제치고 이뤄낸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해발 2,74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니트젠은 그 꼭짓점에 만족하지 않고 당당히 세계의 정상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6. 릴랙스~ 몸과 마음의 기운을 충전하는 휴게실

매일 아침, 니트젠의 휴게실 탁자엔 일간지와 경제지, 전문지까지 7종이 넘는 신문이 놓인다. 직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할 때나 점심을 먹은 후 편안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넓은 세상을 만난다. 휴게실 안쪽으로 또 하나의 방이 숨어 있는데, 밤을 밝히며 연구하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침대방'. 그대로 드러눕고 싶을 정도로 폭신한 이불과 베개 속에서 니트젠의 직원들은 짧지만 꿀처럼 달콤한 휴식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7. 쓰면서 말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반짝!

2층 회의실, 문 밝고 공기 좋은 ‘담강산’에 들어서니 마침 기획팀과 경영기획팀의 회의가 한창이다. 벽 전체가 청색 칠판으로 되어있는 게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주어진 공간을 일차게 활용하는 니트젠의 센스가 돋보이는 공간. 더구나 칠판에 쓰면서 회의를 하면 아이디어도 쑥쑥 떠오른다.

“회의라고 해서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벤처답게 툭툭 튀는 의견들이 많네요. 칠판이 여러 의견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칠판 자체가 효율적인 장식이 되는 회의실, 자유로우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회의에서 니트젠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8. 니트젠의 ‘사람들’

니트젠은 ‘사람 중심’의 회사이다. 니트젠은 지난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근무한 지 만 5년이 넘는 장기근속자에게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수여했다. 니트젠 근무 7년차인 전재현 차장도 장기근속자로 선정되었는데 총 58명의 직원 중 16명이 장기근속자라고 하니 니트젠이 얼마나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작년엔 니트젠이 내놓은 첨단 지문인식기 ‘핑키 햅스터’의 제품명도 사내 공모를 통해 지어진 것. 니트젠의 핵심, 지문인식의 손가락을 뜻하는 ‘finger’와 ‘key’가 합쳐져 ‘핑키’라는 귀여운 이름이 탄생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직원들의 땀과 정성이 수놓여있는 니트젠. 철통같은 보안을 책임지는 니트젠의 이름 뒤에 따뜻한 마음과 유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9. 니트젠도, 우리 남편도 ‘짱’ 이에요!

SD팀 전재현 차장의 아내 정예은 씨

“자식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일일 벤처 체험’에 응하게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들과 항상 든든한 사위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늘 궁금해 하신다는 부모님. 그동안 말로만 전할 뿐 다른 방도가 없어 안타까웠다는 정예은 씨는 이젠 ‘벤처다이제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 일부러 웃도 남편과 함께 하려는 상의에 하얀 바지로 맞춰 입은 거라며 웃는 모습이 소녀 같다.

“아직도 하루에 10통이 넘게 전화를 할 만큼 자상해요.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면 100% 믿지요. 남편이 믿고 좋아하는 회사니 저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걱정했는데 와서 보니 전보다 더 쾌적하고 넓어진 회사 환경이 마음에 쏙 든다는 그녀. 다음엔 이들과 함께 찾아와야겠다며 니트젠과 남편에게 힘찬 파이팅을 보낸다.